

비뇨기계 질환의 관리대책 ①

노인성 요도염

노인 건강에 있어서의 요로감염은 사람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는 문제가 되었다. 요로감염의 유병률은 젊은 층에서보다 매우 높으며 6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20%, 남성에서는 10% 이상에서 세균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젊은 층에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서 30배 이상 세균뇨의 유병률이 높지만 고령에 따라서 남성의 유병률이 증가하여 여성의 유병률에 근접하게 된다. 노인에서 요로감염의 증가 원인은 나이에 따른 생리적 변화, 요로의 후천적 이상 발생 및 환경에서의 증가된 위험인자 노출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요로감염에의 증가에 관여하는 인자로는 세포매개 면역의 감소와 요로폐색, 신

우 좁으므로 사려깊은 약용량의 조절 및 혈중치 관찰이 필요하다.

1. 노령층에서의 남성 요도감염

요로감염의 빈도는 일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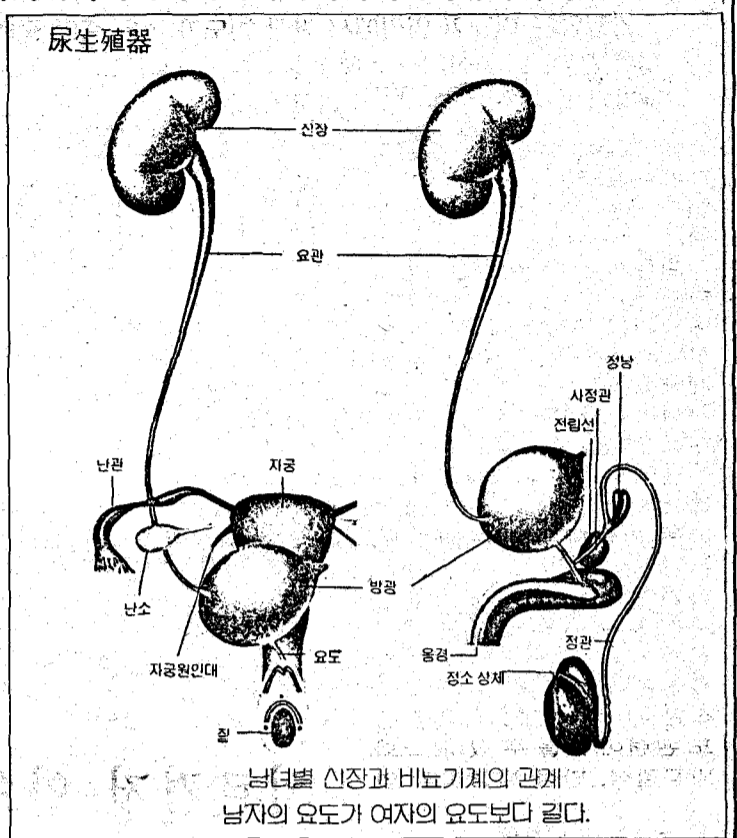


이 무 상
(연세의대 교수)

하게 된다. 이때 요의 저류 및 폐색을 초래할 수 있어 요도감염 및 전립선염이 쉽게 생기고 오랜기간 지속될 뿐 아니라 자주 재발되며 적절한 항균제로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폐색이 제거되기 전에는 약물치료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내과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고 쉽게 재발하는 감염은 항상 요로폐색 유무의 검사가 필요하다. 폐색성 요로질환의 치료는 폐색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먼저 제거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폐색이 제거된 뒤에도 동반된 감염은 적절한 항균제로 완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노령층에서의 여성 요도감염

여성에서는 생리적으로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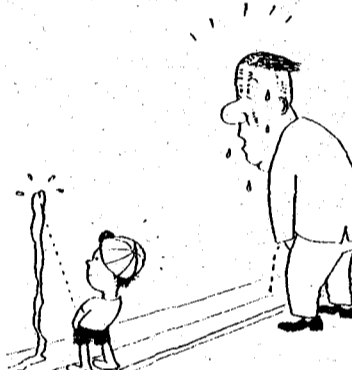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여성에서 요로감염의 빈도 많으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전립선비대증의 영향으로 남성요로감염의 빈도가 늘어난다.

자극에 민감하여 요도질 전벽이 위축됨에 따라 요도구의 후순이, 외번되는 경우가 많다. 요는 일반적으로 무균상태이며 Lugol 용액으로 질상피세포를 도말검사하여 염색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되어 있는 세포는 요도구를 잘 빨아들이지 못하여 노란색을 띄게되나 정상점막 세포는 글라이코겐을 함유하고 있어 진한 갈색을 띄게 되어 진단이 가능하고 Papanicolaou 염색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요도내시경 소견은 요도점막이 충혈되어 있고 과립 형태를 띤다. 치료는 0.1mg diethylstilbestrol 질정을 매일 밤 3주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에스트로겐 크림을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3주간의치료가 끝나면 1주간 약제의 사용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이와같은 치료과정을 반복하면 되는데 3회 이상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질정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 질의 자극이나 출혈이 문제가 되면 methyltestosterone 복용 재제를 질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 치료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노인층-약용량 조절, 혈중치 관찰 필요

경성 기능장애, 요로상피의 증가된 감염에 대한 감수성 증가 등으로 방광의 감염에 대한 방어능력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으로는 무증상 세균뇨로부터 치명적인 패혈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무증상 세균뇨로 보통 기면상태(lethargy), 정신착란, 식욕부진 및 요실금 등의 양상을 나타내므로 흔히 오진을 하거나 진단이 늦어져 이완을 및 치사율이 높아지게 된다. 노령층에서의 복잡성 요로감염에는 흔히 요로이상이 동반되므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노인층에서는 젊은 층에 비하여 항생제의 대사 및 배출에 장애가 있어 항생제에 대한 독성과 부작용에 더 민감하며 증가된 혈중치가 신기능에 손상을 일으키는 일이 빈발한다.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용량과 독성을 나타내는 용량 사이의 간격도 때

으로 여자에서 남자보다 더 많다. 그 이유는 여성에서는 특유하게 회음부와 질에 장내세균의 집락(colonization)이 있고 요도가 더 짧고 곧아서 감염되기 쉽기 때문이며 남자의 전립선내에 존재하는 항균물질인 아연성분이 여성에는 없다는 사실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령의 증가로 인하여 남성에서는 전립선비대증의 영향으로 남성 요로감염의 빈도가 늘어나게 된다. 남성에서는 고령이 되면 내분비 기능의 변화로 인하여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이 증가된다. 이는 후부요도의 점막하에 있는 내선 즉 요도주위선이 과증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후부요도가 연장되고 압박되어 요류통과 장애가 생겨서 배뇨장애를 일으키며 외선 즉 고유의 전립선은 주위로 압박되면서 위축되어 증식된 조직과의 사이에 외과적 피막을 형성



요속감소(尿速減少), 요선감소(尿線減少) 소되어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질상피가 건조해지고 참백해진다. 발생학적 기원이 같은 하부요도에도 이와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며 요도구(caruncle)와 유사한 모양을 나타낸다. 임상적으로는 빈뇨나 급박뇨등의 방광자극 증상과 긴장성 요실금 및 질과 회음부의 소양감동이 나타나게 되며 질상피는 건조하고 참백하며 요도구 점막은 충혈되어 있고

맨파오

精力·氣力 증강을 위한 秘方

中國皇室秘方 生藥 31種

鹿茸·廣狗腎·黑驢腎·當歸
人參·牡丹皮·海馬·杜仲·阿膠
桂枝·仙茅·菟絲子·補骨脂
淫羊藿·胡蘆巴·巴戟天·肉蓯蓉
鎖陽·川續斷·熟地黃·覆盆子
炮附子·枸杞子·玄參·黃耆·白朮
山茱萸·茯苓·麥門冬·牛膝·甘草

MAN PAO

표준소매가격 : 40캡슐/30,000원, 120캡슐/80,000원
문의처 : (02)464-0861, 약솔부



'맨파오'란 무엇인가?

'맨파오'는 강장(強壯) 및 강정(強精)을 중심으로한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복합처방 되어있는 광범위한 효능·효과의 자양강장제입니다.

수입·판매원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56-408
대표원
日本·田辺製藥株式会社
日本·大阪
제류원
中國天津市力生製藥廠
中國天津市南開區黃河道491號